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DAMG 구성원이 함께 지키는
생활 속 보안 수칙

3면

국·영·수 완전체로 돌아온 ‘티처스2’

4면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



보고, 듣고, 체험하는 도심 속 건강 축제 ‘2025 서울헬스쇼’

5월 13~15일 사흘간 역대 최대 7만 명 참가…K서플부터 AI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신규 콘텐츠 선보여



①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헬스쇼 행사장이 다양한 헬스 관련 콘텐츠를 체험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3일간 열린 행사에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했다. ② 퇴근길 저녁 ‘도심 속 선셋 yoga’ 행사에서 시민들이 단체 yoga 클래스에 참가해 여유를 즐기고 있다. ③ 단체 줄넘기 경기에서 어린이로 구성된 참가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④ AI 영상 솔루션 기업 뷰노 부스에서 한 시민이 AI 진단 기기를 사용해 심장 나이를 확인하고 있다. ⑤ 줌바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이 색색의 운동복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희성·송은석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도심 속 건강 축제 ‘2025 서울헬스쇼’가 5월 13~1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올해 3회 짝을 맞는 서울헬스쇼는 시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건강 콘텐츠를 더욱 강화했고, 그 결과 역대 최대인 누적 관람객 7만 명을 넘겼다. 특히 인공지능(AI) 헬스케어부터 안티에이징, 헬시푸드까지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 축제로 자리 매김했다.

역대 최대 7만 명 참가…스피닝·서플 등 프로그램 인기
화창한 봄 날씨 속에 막을 올린 2025 서울헬스쇼는 ‘보고 듣고 체험하는 도심 속 건강 라이프’를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했다. 첫째날인 13일에는 17개 팀이 참가한 단체 줄넘기 경기가 펼쳐졌다. 최종 우승팀은 64회를 성공해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또 퇴

근길 저녁 ‘도심 속 선셋 yoga’ 시간에는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어주는 단체 yoga 클래스가 열렸다. 해가 진 뒤 시작된 ‘도심 속 불명 타임’에는 시민들이 폭신한 의자에 기대 대형 스크린 화면에 뜬 모닥불을 바라보며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즐겼다.
14일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인 ‘재키사이클 스피닝 체험’이 개최됐다. 7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며 자전거를 탔다. 지난해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혔던 개구먼 김혜선 씨의 점핑머신 체험은 올해도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점핑머신 운동은 신체 밸런스를 개선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 날인 15일 ‘K서플 페스타’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참가자가 트렌디한 음악에 맞춰 서플댄스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 누적 참가인원은 총 7만1000명으로 지난해(6만2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2025 서울헬스쇼를 준

비한 동아일보 AD본부 전략사업팀 노태진 과장은 “스피닝과 서플댄스 등 신규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젊은 연령대 참가자가 늘어난 점이 올해 행사의 특징”이라며 “OX 퀴즈, 턱걸이 이벤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경품 행사를 마련한 것도 현장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AI 등 활용한 헬스케어 체험 부스
2025 서울헬스쇼에는 LG전자, 뉴발란스, 세라젠, 국립중앙의료원 등 기업이 76개 부스를 꾸렸다. 참가부스는 2023년 40개, 2024년 68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96%가 “재 참가 의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전시 부스는 참가기업 업종에 따라 ▲스마트러닝 ▲메디컬 ▲빅파파&바이오 ▲스마트헬스케어 ▲힐링라이프 ▲슬림&안티에이징 ▲금융헬스케어 ▲공

공라이프 등 8개조로 세분화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을 체험하는 부스들은 대기줄이 수십 m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AI 영상 솔루션 기업인 뷰노 부스에서는 AI 기기 ‘하티브’가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심전도 파형을 분석해 심장 나이를 산출해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3일 대웅제약 부스를 방문해 AI로 실명질환 진단을 돕는 ‘위스키(WISKY)’ 기기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AD본부 김명환 전략사업팀장은 “2025 서울헬스쇼는 참가기업 수가 늘고 업종들도 다양해지면서 부스마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채워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헬스쇼를 참가 시민과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건강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AMG 구성원이 함께 지키는 생활 속 보안 수칙 “사내 이메일은 업무용으로만”, “출처 불분명 문자는 클릭 NO!”

신분증 사진 스마트폰 저장해도 유출 위험 ↑
보안 전문가, “기본 수칙 실천이 해킹 예방의 첫걸음”



사내외 보안 전문가가 강조하는 해킹 예방 수칙

“회사 이메일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 등
이용 시 사내망 해킹
2차 피해 가능성

“비밀번호는 자주 바꾸고,
계정마다 다르게
만드는 게 좋아요.”



특정 계정 해킹 시
다른 계정까지
추가 피해 예방

“출처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 돼요.”



부고 소식 등 가장해
악성 앱 심는
스미싱 피해 급증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나
신분증 사진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마세요.”



해킹 시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 악용 위험 초래

해킹 취약점 발견된 인증서 및 보안 프로그램

제품명	삭제 필요 버전
AnySign4PC	1.1.4.3 이하
TouchEn nxKey	1.0.0.89 이하
CrossEX	1.0.2.16 이하
INNORIX	9.2.18.538 이하

※ 악성코드 감염 위험 높아 반드시 삭제 요망

- ▶ 프로그램 및 버전 확인: 윈도우 검색창에 appwiz.cpl 입력
- ▶ 문의: 동아닷컴 비즈테크팀(02-360-0396)

최근 국내 해킹 사례가 급증하며 개인과 회사 보안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필수 예방 수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사내 이메일은 외부 사이트 가입 시 사용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열지 않는 등 예방법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생활 속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회사 보안을 강화하는 첫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사내 이메일은 외부 사이트 입력 NO!

보안 전문가들이 꼽은 첫 번째 해킹 예방법은 사내 이메일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

시 사내 이메일을 인증수단으로 쓰면, 해당 사이트가 해킹 됐을 경우 사내망까지 해킹에 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내망인 지니어스 계정 비밀번호를 외부 사이트 계정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정 계정이 해킹되더라도 다른 계정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미디어그룹 정보기술(IT) 보안 담당자인 동아닷컴 비즈테크팀 남정우 차장은 “비밀번호는 자주, 복잡한 패턴으로 바꿔야 한다”며 “업무용 PC에는 업무 관련 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은 최대한 설치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은행 및 공공기관 사이트 이용 시 설치되는 인증서 및 보안 프로그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舊) 버전의 프로그램을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으로 삼고 악성코드 감염을 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니어스에 공시된 것처럼 ▲AnySign4PC(1.1.4.3 이하 버전) ▲TouchEn nxKey(1.0.0.89 이하), ▲CrossEX(1.0.2.16 이하), ▲INNORIX(9.2.18.001 이상~9.2.18.538 이하)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윈도우 검색창에 ‘appwiz.cpl’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다. 남 차장은 “삭제 후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한 최신 버전이 자동 설치된다”고 했다.

신분증 사진 스마트폰 저장도 NO!

해커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해킹 수단 중 하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악)을 심는 ‘스미싱(문자 사기)’ 공격이다. 스마트폰에서 부고 소식 등을 가장한 문자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연락처와 개인·금융정보 등이 빠져나가게 된다. 연합뉴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출처가 불분명한 의심 문자는 절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며 “앱도 공인된 스토어에서만 다운 받아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거나 계정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것도 해킹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해킹

을 당하면 스마트폰의 사진과 텍스트 파일을 모두 뺏기는 꼴”이라며 “해커들이 쓸모 있는 데이터는 다크웹에서 팔거나 개인정보를 몰로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사내 구성원들이 다 함께 실천에 나설 때 실효성 있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권현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르는 사람의 접촉을 자제하는 등 보건 수칙을 지키듯, 해킹 예방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인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해킹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구득교

모닝커피런 등 신규 프로그램 마련한 여의도 ‘러너스테이션’

올해부터 동아일보가 운영…5000여 명 참가한 ‘제2회 러너스 페스티벌’도 인기



①



②

①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마련된 ‘러너스테이션’에서 참가자들이 코어 강화 운동법을 배우고 있다. 러너스테이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아일보는 지난월부터 모닝커피런, 코어 강화 등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②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2회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다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러너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 여의도 ‘러너스테이션’이 한층 새로워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러너스테이션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제2회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도 5000여 명이 참가해 큰 인기를 끌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마련된 러너스테이션은 물품 보관함, 탈의실 등 러닝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이

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러너스테이션의 운영은 올해부터 동아일보가 맡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7일부터 일상 속 러닝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했다. 매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모닝커피런’,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러닝 클래스, 수요일에는 요가 또는 코어 강화 프로그램, 목요일은 러닝 크루 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이색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용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매월 다양한 이벤트로 마련됐다. 4월에는 솔로 러너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매칭을 통해 커피 러닝을 즐기는 이벤트 ‘런남러너’를 진행했고, 5월에는 봄밤 낭만을 더하는 ‘서마솔런(Seoul My Soul Run)’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또 지난달 26일 ‘러너들의 놀이터’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에서는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여의도공원

을 가득 메웠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주관한 이번 페스티벌은 ▲10K 오픈런 ▲크루랭킹전 ▲100m 스피드 챌린지 ▲10km 타임 트라이얼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강변을 따라 자유롭게 달리는 10K 오픈런은 신청 1시간 만에 사전 접수가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크루별 계주 형식의 크루랭킹전과 개인 기록 측정을 위한 100m 스피드 챌린지 등은 참여자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러너스테이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박형준 신사업기획팀장은 “러너스테이션이 러닝 문화 부흥의 중심지가 되도록 새롭고 알찬 프로그램을 더 많이 도입하겠다”고 했다. 러너스테이션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runnerstation.co.kr)와 인스타그램(@runnerstation_)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문화사업본부 신사업기획팀 이주현

국·영·수 완전체로 돌아온 ‘티쳐스2’ 연예계 대표 브레인들의 지식 대결 ‘브레인 아카데미’도 출격

티쳐스2, ‘공교육의 전설’ 국어 일타 교사 윤혜정 합류…‘브레인 아카데미’는 5월 말 첫 방송



티쳐스2에 새로 합류한 국어 영역 일타 윤혜정 교사. 티쳐스2는 윤혜정 교사의 합류로 수학 정승제 강사, 영어 조정식 강사와 함께 ‘국·영·수 완전체’로 출격한다.



‘에듀 솔루션 버라이어티’ 장르를 개척한 채널A의 〈성적을 부탁해: 티쳐스2〉가 더욱 완벽해진 시즌2로 돌아왔다. 티쳐스는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즌1의 매 화차가 방영될 때 마다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시즌에서는 수학 정승제, 영어 조정식 등 기존 강사진에 더해 ‘공교육의 전설’로 알려진 국어 윤혜정 교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티쳐스 제작진이 시즌2를 위해 야심차게 꾸린 ‘국·영·수 완전체’의 출격이다.

티쳐스2는 4일 첫 방송부터 열풍을 일

으켰다. 정승제 강사는 ‘지옥의 수학캠프’로 밤샘까지 불사한 초강력 코칭을 진행했고, 24점이었던 문제 학생의 성적을 61점까지 끌어올리며 극적인 성적 상승을 이끌어냈다. 새롭게 합류한 윤혜정 교사 역시 의뢰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며 밀착 국어 솔루션을 예고했다. 첫 방송 직후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도 “윤혜정 선생님을 캐스팅한 것은 신의 한 수다”, “이 조합 진짜 미쳤다”, “시즌2만 기다리고 있었다” 등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티쳐스2는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도 방송 첫 주만에 TOP10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다.

티쳐스2 제작진은 이번 시즌의 관전 포인트로 국어 과목의 합류를 꼽았다. 김승훈 스튜디오E 2CP는 “학생들이 요즘 큰 어려움을 느끼는 문해력에 주목했다”며 윤혜정 교사의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국어 공부는 어렵고 막연하다는 오해가 있다”며 “국어 1타 윤혜정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기대해달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티쳐스2는 방송인 전현무·장영란 그리고 배우 한해진 등 3명의 MC와 함께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된다.

5월 채널A의 시작을 티쳐스2가 열었다면 5월의 마지막은 고품격 지식 퀴즈쇼 〈브레인 아카데미〉가 장식할 예정이다. 브레인 아카데미는 연예계 대표 브레인 6명이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출제하는 퀴즈를 맞히는 채널A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 매회 색다른 지식 분야와 문제를 풀어가는 출연진의 팀워크가 관전 포인트다. 브레인 아카데미의 출연진 라인업도 화려하다. 연예계 대표 브레인인 전현무와 하석진을 중심으로 한국사 능력검정 1급의 ‘역사 브레인’ 배우 이상엽,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생명공학을 전

공한 ‘영재 브레인’ 배우 윤소희가 함께한다. 또 수능 수리 1등급을 받은 ‘반전 브레인’ 개그맨 황제성과 유튜브 구독자 129만 명을 보유 중인 ‘과학 브레인’ 곽도가 나선다. 브레인 아카데미를 이끄는 스튜디오E 1CP의 문영석 PD는 “퀴즈쇼의 르네상스를 열겠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자연스럽게 ‘딥 러닝’까지 가능한 지식 예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지식 탐험의 새로운 즐거움을 제시할 브레인 아카데미는 5월 말 첫 방송된다.

편성전략본부 C-벨류업팀 송수하

동아미디어그룹 대선 콘텐츠 본격 가동

채널A 주관 국민의힘 경선 ‘맞수토론’, 종합편성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기록…동아일보 ‘선거TALK’ 오픈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다



맞수 토론



동아일보 '2025 대선' 특집 페이지, 트럼프 2.0 폴리스 앱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동아미디어그룹도 차별화된 대선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채널A 보도본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다〉토론회를 매주 특별 편성하고, 동아일보 편집국은 각 후보들의 실시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보여주는 〈선거TALK〉등을 새로 선보인다. 동아미디어그룹만의 경쟁력 있는 대선 콘텐츠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목표다.

채널A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다’, 첫 회부터 호평

채널A는 지난달 14일부터 긴급 토론회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다’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은 “계엄과 탄핵으로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이 시작됐지만 차기 대통령을 검증할 시간은 부족하다”는 문

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화된 고품격 토론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조건과 자격, 그리고 후보들을 심도 있게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치권의 현실을 주제로 한 1회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각 진영의 균형을 맞춘 패널 섭외와 밀도 있는 진행으로 출연자들 역시 “상대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호평했다.

채널A ‘맞수 토론’, 동시간대 중편 시청률 1위

채널A가 지난달 24, 25일 이틀간 주관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동시간대 1위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동훈, 홍준표 후보 간의 맞수

토론은 유튜브 조회수가 150만 회에 육박했다. 이번 토론은 동아미디어센터 1층 오픈스튜디오, 21층 스튜디오를 번갈아 사용하며 시각적 차별화를 꾀했고, 채널A의 간판 앵커인 김종석, 김진 앵커가 차례로 진행을 맡아 토론의 품격을 높였다.

차칫 지루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사이 사이에 진행된 OX퀴즈, ‘질문을 부탁해’, ‘유권자 질문’ 코너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의 마지막 맞수토론의 주도권 시청률은 2.448%를 기록해 종합편성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여기에 채널A 보도본부는 토론회 시작 전 각 후보가 입장하는 모습과 사전 인터뷰를 유튜브로 송출해 화제가 됐다.

동아일보 ‘선거TALK’, ‘마크맨’ 첫선

동아일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동아닷컴과 협업해 지난달 28일 ‘2025 대선’ 특집 1차 페이지를 열고 대선 관련 기사와 동영상, 쇼츠 등을 한 곳에 모아 선보였다. 여기에 공식 후보 등록 이후에는 2차 오픈을 통해 각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후보들의 실시간 행보와 발언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보여주는 ‘선거TALK’ 코너를 시작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주요 쟁점과 관련한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편집국 정치부는 대선 디지털 특화 코너인 ‘마크맨’을 선보였다. 각 당 후보를 마크하는 기자들이 전국 유세 현장을 취재하며 한 발 더 뛰어 지역 현장 민심을 훑어보는 코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공약을 파헤쳐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팩트체크’ 코너도 진행한다. 편집국

디지털랩은 대선 당일인 6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계획 중이다.

앞서 한국보다 먼저 대선을 치른 미국의 정세를 분석하는 기획도 새롭게 시작됐다. 편집국 디지털랩은 국제부와 협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미니 히어로콘텐츠 ‘트럼프 2.0 폴리스 맵’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동아일보 기사를 활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아카이빙하고 각 국가별 주요 영향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했다. 특히 기사 리스트업 및 요약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 효율성을 더했다.

보도본부 동정민

보도본부 김단비

편집국 디지털랩 강유현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

서양미술 대작 143점 서울 상륙

400년에 걸친 서양미술 거장들을 만나 는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전시가 16일 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표하는 공공미술관 인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JAG)의 소장 품 143점을 선보인다. 클로드 모네, 빈센 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등 서양미술사를 대표하는 89인 거장들의 작 품을 만날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 황금 기를 비롯한 인상주의, 모더니즘, 현대미술

까지 400년에 이르는 서양미술의 흐름을 총망라한다. 앞서 경주, 부산, 제주를 거치 며 큰 사랑을 받은 이번 전시는 서울에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국내에 처음 공개 되는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의 주요 명 작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서울 전시 개막을 앞두고 진행된 1차 얼 리버드 티켓 판매는 5만 4000장 이상이 팔 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동아일보, 동아닷컴, 인터비즈 등 동

아미디어그룹 산하 플랫폼들의 협업이 진 행 중이고 충정로 사옥 외벽에 설치된 초대 형 전시 현수막과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전략도 진행 중이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휴 관일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운영된다. 문화사업본부는 향후 야간 프로그램과 관람 후기 이벤트 등도 순차적 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본부 문화기획팀 김민서



“소상공인 기 살리기”…제1회 마포상생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소상공인·시민에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 전해



제1회 마포상생콘서트가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주제로 열렸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따 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제1회 마포 상생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채널A는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아트 센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기 살리기’ 를 주제로 마포상생콘서트를 주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마포상생콘서트는 단순 한 공연을 넘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지역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마련 됐다. 콘서트는 지역 상생 캠페인 영상 상영 을 시작으로 2시간 동안 클래식부터 재즈,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 트들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볼거리를 선 사했다. 인기 가수 박현빈, 타포스 난다,

색소포니스트 루카스, 재즈피아니스트 이혜원 켈트 등이 멋진 공연을 펼쳐 뜨 거운 호응을 얻었다. 500여 명의 관객이 좌석을 가득 매운 이번 콘서트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됐다. 채널A는 올해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마포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

략기획본부 퍼블릭전략팀 이도영 파트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 다 양한 지역 기반의 문화 기획을 이어 나 갈 계획”이라며 “지역 사회와 상생 구조 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콘텐 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략기획본부 비즈니스기획1팀 이민중

수상소식

신문박물관 장해림 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



동아일보 신문박물관의 장해림 연구원(사진)이 제14회 국립중앙박물관 회 학술상 은관상을 수상했다. 장 연구원은 논문 ‘20세기 초 한국미술품 의 미국 경매: 재조선 외국인 컬렉션 을 중심으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도본부 홍란 기자
소아청소년병원협회 기자상 수상



홍란 채널A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기자(사진)가 5월 3일 소아청소년병원 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인 점을 인정받아 ‘제6회 대한소아 청소년병원협회 기자상’을 받았다.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부서
- ① 입사 후 포부
 - ② 요즘 관심사
 - ③ 최종 직장



이슬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성실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를 늘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팀과 회사에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 ② 건강한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독서, 강아지와 보내는 시간, 맛있는 음식, 전시, 야구를 즐깁니다.
- ③ 지학사



마은유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정책기획팀에서 일하며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방송 정책과 공공성 등을 열심히 익히며 기획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 ② 종로구에서 일하는 만큼 경복궁, 창경원 등 서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기고 싶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싶습니다. 샌드위치 사서 체계전 가기가 1순위 관심사입니다.



신세희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안녕하세요! 경영전략실 경영기획팀에 신입으로 입사한 신세희입니다. 저의 첫 회사가 채널A가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② 저의 요즘 관심사는 운동입니다. 한동안 취업준비로 운동을 소홀히 하였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시작하고자 얼마전에는 러닝화도 장만했습니다. 저녁시간을 이용해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지혜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안녕하세요! 채널A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시작을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② 통근과 자취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빵을 좋아해 대전의 성심당을 종종 다녀왔지만 최근에는 인기가 너무 높아져 이제는 천안의 뚜주루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우빈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콘텐츠와 경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채널A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전략적 도약에 기여하는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 ② 요즘 국내 K리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현장 직관을 가고, 다양한 리그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국내 축구의 팬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김지훈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씩 보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회계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싶습니다.
- ②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에도 아직 방문하지 못한 아름다운 장소가 많다고 느껴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장소는 울릉도입니다.



김진우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100년 이상 사랑받는 동아일보처럼, 채널A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방송사가 되도록 든든한 재무 기반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 ② 오래된 영화와 음악을 찾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주열 서스펙트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음악은 변진섭의 ‘숙녀에게’와 김현철의 ‘내 사랑 내 곁에’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김형중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열정 가득한 신입 사원으로 조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업무와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② 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브레이킹 댄스, 흔히 비보잉이라고 불리는 춤을 취미로 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축구, 야구 등 스포츠 보는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변재은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안녕하세요!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 신입사원 변재은입니다. 첫 직장이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② 요즘 가장 즐겨하는 것은 러닝입니다. 앞으로 직장생활에서의 체력을 더욱 기르기 위해 러닝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주연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꾸준함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며,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사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 ② 어릴 때부터 예능과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도 OTT와 유튜브를 통해 여러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어진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안녕하세요! 채널A와 함께하게 된 인재로 화뵐 정어진입니다. 부족한 점은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② 요즘 관심사는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를 할 때만큼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몸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